

광주 94.9%·전남 94.5% “꼭 투표하겠다”

대선 투표 참여 의향

전국 유권자 94.5% 참여 의사
40대 92%·60대 이상 91.7%
정의당 지지자 96.6% ‘최다’

■ 대선 투표 의향 (단위: %)

꼭 할 것이다	90.7
아마 할 것이다	3.8
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	1.4
투표하지 않겠다	1.2
모름/무응답	2.9

이번 19대 대선에는 국민 10명 중 9명꼴 이상 투표의사를 표시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.

또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자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와 전남이 다른 광역 시·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,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의향에 대해 유권자 94.5%가 “참여하겠다”고 밝혔다.

그 중에서도 “꼭 할 것이다”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비율은 90.7%, “아마 할 것이다”는 3.8%였다. “꼭 할 것이다”를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4.9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전남(94.5%)·제주(93.5%)·경기(92.2%)·경북(91.0%)·부산(90.9%)·서울(90.8%)·충남·세종(90.7%)·충북(89.9%) 등의 순서로 투표 의향이 높았다.

반면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힌 응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85.3%를 각각 기록한 대구와 울산이었다.

연령별로는 92.0%를 나타낸 40대가 적극적 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으며, 이어 60세 이상(91.7%)·30대(91.7%)·50대(91.5%)·19~29세(85.7%) 등의 순이었다.

부동층과 기타 정당을 제외한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자들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 비율이 96.6%로 가장 높았다. 이어 더불어민주당(95.9%)·국민의당(94.0%)·자유한국당(93.4%)·바른정당(90.4%)·새누리당(82.5%) 등의 순이었다.

지지 후보별로는 96.7%를 기록한 문재인 후보의 투표 의향이 가장 높았다.

이어 홍준표(93.9%)·안철수(91.2%)·조원진(90.9%)·유승민(90.3%)·심상정(88.5%) 등의 순이었다. 이는 지지 정당별 투표 의향 지지율과는 또 다른 양상이다.

성별로는 여자(91.5%)가 남자(89.9%)보다 1.6%p 높았으며, 직업별로는 농업·임업·어업·자영업자의 적극적 투표 참여 의사 비율이 91.4%로 가장 높았다. 반면 학생의 비율은 83.6%로 가장 저조했다.

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/이종철기자 golee@kwangju.co.kr



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군 장병 부모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희망 풍선을 날리고 있다.



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‘온국민멘토단 임명식’에서 참석 멘토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“지지 후보 바꿀 수 있다” 30%

부동층도 15%... 대선 막판 변수 될 듯

지지 후보 충성도

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응답자의 30%는 현재 선택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는 15% 수준의 부동층과 함께 이번 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.

지지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.3%는 ‘계속 지지 할 것 같다’고 답했다. 반면, 29.5%는 ‘다

를 사람 지지로 바꿀 수 있다’고 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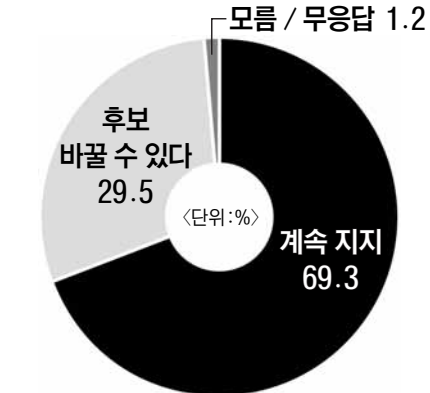
이 같은 지지후보에 대한 충성도는 고연령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20대 이하에서는 계속 지지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46.5%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인 51.9%가 지지철회 가능성을 보였다. 하지만, 30대는 ‘계속 지지 63.7%대 지지철회 가능 35.9%’→40대는 ‘74.2%대 24.8%’→50대는 ‘75.8%대 23.6%’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지철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

조사됐다. 60대 이상은 79.7%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반면, 18.2%만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.

지역별로는 충남·세종(계속 지지 78.8%대 지지철회 가능 21.2%)과 경북(77.1%대 22.1%)이 지지후보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지만, 울산(60.6%대 39.4%)·대구(63.7%대 33.5%)·인천(63.9%대 35.5%) 등은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

광주는 ‘계속 지지 68.5%대 지지철회 가능 28.8%’, 전남은 ‘69.0%대 30.1%’로 모두 평균 수준이었고, 호남 전체로도 ‘70.

후보 지지 의향



4%대 28.2%’였다.

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

심상정 34.8%...문재인·홍준표·유승민·안철수 순

TV 토론 누가 잘했나

심, 50대까지 좋은 평가
60대 이상은 홍준표 호평
“토론 보고 지지 철회” 7.2%

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, 지난 달 28일 실시된 TV 토론을 보고 지지후보를 바꾼 응답자는 7.2%로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마지막 남은 TV 토론 결과도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.

우선 응답자의 55.7%인 절반 이상이 지난 금요일 TV 토론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. TV토론 시청자는 20대 43.5%, 30대

53.9%, 40대 54.9%, 50대 63.9%, 60대 이상 59.8%가 ‘TV토론을 봤다’고 답하는 등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많았다.

‘금요일(4월28일) TV토론을 보고 지지하던 후보를 바꿨느냐’는 질문에 대해 87.4%는 ‘바꾸지 않았다’고 했지만 7.2%는 ‘바꿨다’고 답했다. 이 같은 성향은 세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

하지만, 지역별로 살펴볼 때, TV토론 시청 후 지지후보를 바꾼 응답자는 전남(0.0%)·대전(1.7%)·전북(2.7%)·광주(4.0%)가 가장 적었다. 반면, 부산·대구·인천·경북 등은 모두 11%대의 응답자가 지지후보를 바꿨다고 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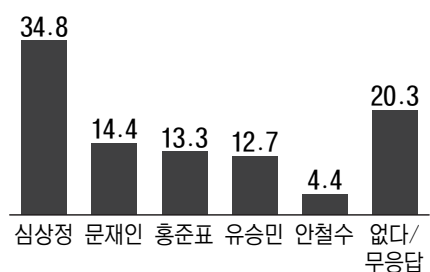
권력별로도 호남 전체는 TV토론 시청 후 지지후보를 바꾼 응답자가 2.1%에 불과

해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. 적어도 호남에서만큼은 TV토론이 대선투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.

‘지난 금요일 TV토론에서 어느 후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가’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꼽는 응답자가 34.8%로 가장 많았다. 이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(14.4%),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(13.3%),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(12.7%) 순이었다.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.4%에 불과했다.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을 완전히 빚나간 것으로 안 후보는 남은 TV토론에 대한 전략을 다시 세우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세대별로 50대까지는 심 후보가 30%대 후반~40%대 초반의 가장 좋은 평가를

TV토론 잘한 후보



받았다. 하지만, 60대 이상에서는 23.4%가 홍 후보에게 후한 평가를 내렸고 이어 심 후보(17.6%)를 선택했다. 홍 후보는 50대에서 심 후보에 이어 2위(16.9%)를 차지했다. 권역별로도 심 후보는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. 안 후보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최하위였고 유일하게 호남에서 7.1%로 5명의 후보 중 4위를 차지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 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어떻게 조사했나

만 19세 이상 3077명
무선 75% 등 전화면접

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대표 신문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(8개사)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 조사연구소에 의뢰해 대선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다.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광주일보와 경인일보·강원일보·경남신문·대전일보·매일신문·부산일보·전북일보 등 전국 8개 시·도를 대표하는 신문사로 구성했다.

이번 조사는 지난날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7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.

표본 선정방법은 유·무선 RDD(임의 전화걸기)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으며, 유선(25%)·무선(75%)전화 임의전화걸기를 통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다. 전국적인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1.8% 포인트다.

응답률은 28.0%로 총 통화 1만979명 중 3077명이 응답을 완료했다.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17년 3월 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·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, 성·지역별 가중값을 적용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/최원일기자 cki@kwangju.co.kr

사주 풍수 공개강좌 및 수강생 모집

사주(명리)와 풍수를 한번에~
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!

무료공개강좌

- 일 시 : 2017. 5. 9(화) 오후7시
- 장 소 : 남구 주월동 398-52, 2층 (구)대동고양 빛고을연합의원 우측 에베이에셀교회 2층
- 대 상 : 누구나 (선착순○)명

초급반 개강 (4개월 과정)

- 일 시 : 2017. 5. 16(화) 오후7시
- 장 소 : 상동(공개강좌 장소)
- 수강료 : 사주 + 풍수 15만원(월)

컨설팅분야

- 가감풍수 비법전수 및 교육훈련
- 수맥파 중화, 양택풍수 감정 및 비보
- 매장, 이장, 납골당 등 음택풍수 감정 및 비보
- 대형건물, 토지 등의 풍수 감정
- 원인불명의 우환, 사업부진 등의 풍수적 진단
- 사주감정 및 교육 (사주, 궁합, 택일 등)
- 작명(신생아, 개명, 상호 등)

한국기감풍수연구회
062)674-4991 / 010-2246-1508

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 차용증·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
녹취등 각종채권상당

▶ 절대 선수금, 출장비용 없음 ◀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채무자 재산, 신용·주거래은행·차량등 파악
- 실거주지파악가능
-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
-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

▶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◀

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

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(24시간 상담가능)

새한신용정보(주)
010-6833-1600
직통전화 062)513-4306

태성공인중개사

상가 / 상가점포

-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㎡ 건물2,000㎡ 매 32억원
-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㎡ 건물2,100㎡ 매 36억원
-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㎡ 건물 1,150㎡ 매 25억원
-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㎡ 건물2,000㎡ 매 40억원
-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㎡ 건물1,890㎡ 매 50억원
- 월계동 1,2층 상가점포 720㎡ 매28억원(보2억원, 월1,200만 포함)
-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㎡ 현 의류점 입점 매13억원 (보1억5천, 월5백만 포함)
-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,000㎡ 매24억원(보1억6천, 월1,100만 포함)
-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㎡ 매 23억원(1층 약국입점)
- 신가동 4층 상가건물(일반상업지역) 대308㎡ 건물1,861㎡ 매14억
-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㎡ 건물500㎡ 매 13억

상가주택

-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㎡ 건500㎡ 매 13억5천 (보8천/월524만원 포함)
-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㎡ 건397㎡ 매10억5천 (보3천2백/월356만원 포함)
-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㎡ 건609㎡ 매10억5천 (보4천 월500만 포함)

토지

- 용전동 생산녹지, 대로점 9,400㎡ 매 48억원
- 산정동 생산녹지, 창고용지 3,810㎡ 20억
-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㎡ 5억원
-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,000㎡ 대 3억
-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㎡ 4억2천만원(기든식당 전합)
-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㎡ 매1억4천(지대농음, 남향)
-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㎡ 매 3억1천만원
-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,500㎡ 매 2억원
-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,000㎡ 매 1억8천만원

매물 접수, 상담 환영
문의 010-5536-0382 정현철
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

태광공인중개사

상가 건물

1.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㎡ 매11.8억원(보9,500 월500 포함)
2.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㎡ 매14.8억원(보1.5억 월780 포함)
3.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㎡ 매11.8억원(보1.2억 월650 포함)
4.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㎡ 매9.3억원(보8,000 월450 포함)
5.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,050㎡ 매50억원(보6억 월2,000 포함)
6.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㎡ 매18억원(보1.2억 월900 포함)
7.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㎡ 매17억원(보1억 월1,000 포함)
8.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㎡ 매4.8억원(보5,000 월180 포함)

상가주택

1.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㎡ 매8억원(보6,000 월370 포함)
2.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㎡ 매6.8억원(보2.7억 보9,000 포함)
3.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㎡ 매10.3억원(보3.7억 월280 포함)
4.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㎡ 매5.9억원(보6,000 월240 포함)

공장 / 토지 / 기타

1.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,150㎡ 매58억원
2.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방 임야48,600㎡ 매6.6억원
3.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㎡ 매3.65억원
4.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㎡ 매23억원
5.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대3,070㎡ 매1.3억원
6.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㎡ 매3.3억원
7.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,115㎡ 매2.8억원
8. 마곡동 상가분양권 1층 주출입구코너 71㎡ 매5.2억

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
문의 010-2572-4663